

전주시, 미래 먹거리 '드론' 사업유치 본격화

'로보유니버스 2016' 참가 육성계획 등 홍보

전주시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 산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업유치에 나섰다. 전주시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드론 전시행사인 '로보유니버스(Roboverse) 2016' 행사 참석을 시작으로 전주 드론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미국의 유명 글로벌 미디어 그룹 라이징 미디어 (RisingMedia, 옛 MediaMedia)와 한국 킨텍스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7개 도시를 순회하는 국제규모의 컨벤션 행사로, 국내 드론 제작·판매업체, 드론 교육기관, 연구·개발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지자체 등 100여 개의 업체 및 기관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드론 활용사업 시연, 네트워킹 및 설명회, 레이싱대회 등을 통해 드론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공개 등을 통해 드론산업의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드론의 안전성 검증 시범공역

현황과 농업용 드론센터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소개하고 리플렛 배포를 통한 홍보활동에 나서게 된다. 또한 전주의 드론기업으로 참여한 (주)성진에어로는 국내 자체 제작한 위즈윙(큐브형 접이식 드론)을 선보였으며 헬릭스의 자회사로 설립된 (주)신드론의 경우 농업 살포와 지상봉제장비 기능이 탑재된 농업용 드론을 전시·홍보한다. 이와 함께 탄소섬유를 활용해 드론을 제작하는 국내 탄소강소기업인 (주)큐브는 중대형 드론과 3D프린터를 전시·시연하는 등 전주시 드론기업의 제품 및 성과를 참가기업 및 방문객

들을 대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토부에서 지정한 무인비행장치(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전용공역이자 ICT 기술기반과 융합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점을 살려 드론 제작업체 및 관련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해 시범공역을 확보,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 선정에 따라 완산체련공원 일대 10km(반경 1.8km)는 오는 2017년까지 시범공역으로 운영한다. /김영재기자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에 강도행각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4시경 전주시의 한 호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43·여)씨를 위협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8년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난 A씨와

몇차례 만남을 가져오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합법해 돈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징역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을 정신적 고통이 큰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여성용품 지원사업 전개 전주시는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여학생들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22일 전주시와 건강가정지원센터관계자들이 전주시청에서 231명의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보낼 생리대의 생리속옷 등 여성용품을 택배박스에 담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출근, 낮시간에도 실시

전북경찰청, 통상 야간 3시간에다 주간 3시간 추가

경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에만 하던 음주단속을 출근 시간과 낮 시간으로 확대한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3시간 동안 하던 단속 시간을 확대하고 야간 단속과 함께 출근시간(오전 5시 30분~6시 30분)과 주간(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오후 1~2시) 단속 병행을 추진한다.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음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밤 과음을 하고 다음날 아침 운전대를 잡을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떨어지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출근시간 음주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14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여 2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밤 10시부터 3시간 동안 도내 전 지역 총 114개소에서 교

통경찰, 지역경찰, 기동대 등 총 398명을 동원해 일제히 음주단속을 통해 총 27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 17명은 면허정지, 9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1명은 음주무면허로 입건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면허정지 처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을 경우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이뤄진 이날 경찰의 음주운전 일제단속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실시했다. /인진수기자

교회서 여중생 성추행 목사이들 징역형 선고

교회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주일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교협 전주 제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6)씨에 대한 항소심을 22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3년 12월25일 새벽 남원의 한 교회 유아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양(당시 14세)의 등 뒤에 누워 A양을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이듬해 1월7일 새벽 이 교회 유아실에서 수련회 행사를 준비하고 잠을 자기 위해 누운 A양의 등 뒤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교회 목사의 아들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맡은 강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인 A양이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야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추행이 아니라 A양과 사귀는 과정에서 연인 사이의 애정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이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전주시보건소, 노인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전주시보건소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1951년 출생자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회 접종으로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폐렴,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효과적(50~80%)으로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만 65세 이후에 '2가 다당백신'을 처음 접종했다면 재접종은 불필요하며, 과거에 접종한 이후 65세 이상이 된 경우 5년 경과 후에 재접종하면 된다. 보건소는 더 많은 대상 어르신들이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1951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1:1 접종안내 문자 발송과 전화 우편물 송부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경숙 보건소장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주시보건소, 덕진진료실, 평화보건지소 예방접종실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며 "보건소 직원들도 많은 시민들이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전반적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소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재기자

'고물로 착각' 에어컨 실외기 훔친 60대 검거

군산경찰서는 22일 건물 내부에 설치하기 위해 실외기에 놓아 둔 에어컨 실외기를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5분께 군산시 모 병원 1층 커피숍 개업을 준비 중인 A(45)씨가 에어컨 설치를 위해 밖에 놓아 둔 시가 에어컨 실외기 2대(총 300만원 상당)를

자신의 트럭 적재함에 싣고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로 받고 출동해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범행 차량을 추적해 조씨를 검거, 훔친 에어컨 실외기를 모두 회수했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침 이른 시간에 인도에 에어컨 실외기가 나와 있어서 병원에서 버린 고물일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인진수기자

허위사실 문자 대량 발송 조합장 300만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는 2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농업조합장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8시40분께 자신의 집에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웹사이트를 통해 조합원 3018명에게 상대 후보인 B씨를 비방하는 내용

의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선거 이를 전에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투표권자들에게 보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심각할 정도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